

글·사진 : 편집부

2009 한국오리협회 전문지 기자 간담회



일 시 : 2009년 7월 21일(화) 16:00

장 소 : 한국오리협회 (제2축산회관 6층 대회의실)

참석인원 : 협회 이창호 회장 외 4명,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외 9명 (총 15명)

지난 7월 21일(화), 오리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짚어보기 위하여 농·축산전문지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특별히 본 회 초대 회장인 장규호 고문도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창립 17주년 기념일 바로 전날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 오리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간담회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부】

바쁜 와중에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국오리협회 이창호 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다.

【회장】

국내 농축산업의 발 빠른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애쓰시는 기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조금 더 일찍 이런 간담회를 가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 오리고기 시장은 소비가 상당히 확대되고 활성화 되면서 다시 한 번 황금기가 도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든다.



하지만 소비의 증가만큼 생산량 급증과 생산비 증가로 농가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어 걱정스럽기도 하다. 작년 AI 발생의 여파로 회복이 어려울 것 같았던 오리 산업은 그나마 단기간 내 발전궤도에 재진입하게 되었다. 이것은 오리의 강인하고 끈질긴 생명력을 닮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해 오리고기 소비율이 한 때 AI 발생 전 대비 30~40% 떨어지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2008년 총 오리생산액이 약 1조 1천 500억원으로 농업 총생산액 부문에서 7위로 뛰어오르며 급성장하고 있다. 한국오리협회는 오리산업의 양적·질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오늘 특별히 오리협회를 설립한 장규호 고문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다.

【장규호 고문】

오랜만에 기자분들을 만나서 반갑다. 처음 오리협회를 만들 때 오리는 축산분야에 속하지 못했다. 초창기에 1억 규모의 산업이 17년 만에 1조 1천 5백억 규모로 발전한 것은 기록적인 일이다. 이것은 불충분한 여건 속에서 다함께 노력하여 이루어 낸 성과이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이 남았다. 오리산업이 축산업계에서 한 획을 그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예쁘게 봐주었으면 좋겠다.

【전무】

상반기 업무추진사항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설명하겠다. 상반기에는 종오리업 등록 및 축산업 등록 확대를 골자로 한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오리검정기준, 가축개량 및 종축등록검정기관 지정 고시 제정 및 개정이 시행되었다. 또, 오리사육농장 HACCP 적용근거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의 지원한도가 상향조정되었다. 오리가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정한 29 품목육성대표조직에 포함되면서 이에 따라 오리연구회가 출범되었다. 상반기에 젊은층을 타겟으로 소비홍보 사업을 전개한 바 올해 온라인 마켓에서의 오리고기 판매율이 전년동기 대비 200~250% 가량 상



승하였으며 흡소핑 판매도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의 오리고기 구매자 중 20대 비중이 크게 늘어 27%에 달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반기에는 자조금 사업을 본격 집행하며 교육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터넷 인기 블로거들의 참여 하에 새로운 오리요리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다. 또, 국내 실정에 맞는 종오리 사양 매뉴얼이 11월 중에 보급 예정으로 있다.

오리산업의 두드러진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다. 오리고기는 요식업소 소비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리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이 시급하고, 오리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확대, 가축통계 및 관측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회장】

부가설명을 하면 오리축사시설의 현대화 사업은 글로벌 시대에 시장 경쟁력과 질병 예방, 녹색성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올해 18개 농가만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실질적 산업성장을 위해서는 보조 30%, 자담 20%, 융자 50%(현 보조 20%, 자담 30%, 융자 50%)로 3년 연 650억 규모로 지원을 확대

해야한다.

또 현재까지 오리는 기타가축에 포함되어 1년에 1회 통계자료가 발행되었다. 하지만 점차 확대되고 있는 오리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축산관측에 오리 축종을 추가하여 매월 축산관측 자료가 공개되어야 하며, 정부의 통계청 가축통계조사에도 오리가 포함되어 생산비와 가격, 생산통계 등을 집계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전무】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다.

【축산신문 이회영 기자】

작년 AI 이후 방역의식은 어떤가?

【회장】

방역의식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다. 그 부분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고, 검정사업을 실시하면서 종오리 농가를 수시로 점검하면서 소독·관리 부분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며, 9월 중에 지역별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방역 활동을 습관화하여 농가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농수축산신문 최윤진 기자】

올해의 소비가 어느 부분에서 많이 늘었나?

【회장】

급식에서 소비가 확대되었고 훈제 등의 가공품으로 가정 내 소비도 증가하였다. 작년 AI에 30~40%의 오리 전문점이 휴업·전업을 하였는데, 이 중 60%는 회복이 되었다.

【축산경제신문 김재민 기자】

오리가 질병저항성이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축사 설계도가 나온다면 시설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AI가 소비와 관련하여 가장 큰 변수이니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회장】

현재 표준설계도가 실용성 부분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 표준설계도대로 축사를 짓는 것은 실용성과 현실성 면에서 여러가지 의문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장규호 고문】

원치커튼(축사 환기를 위한 시설)과 자동개폐시설이 설치된 이중 비닐하우스가 오리를 키우는데 가장 적합한 축사라고 생각한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오리산업 유통에 대한 협회의 입장은?

【회장】

현재 유통구조 개선 작업은 진행 중에 있으며, 오리연구회에서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라이브뉴스 곽동신 기자】

생산액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순수 생산액인가?

【회장】

생산액은 정부 집계 방식에 의거한 유통을 제외한 순수 생산액이다. 현재 가장 신빙성이 있는 자료는 국립수의과검역원에서 집계하는 도축통계이다. 오리 사육 수수는 상시 사육수수가 1천만수로 추정되며, 더욱 정확한 자료 확보를 위해 통계청에서 오리에 대한 통계를 반영해야 한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현재 1인당 오리 소비량은 어느 정도인지?

【회장】

성인(2500만명) 기준 2.0~2.2kg으로 추정된다.

【전무】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간담회를 마치도록 한다.

